

# 한전 등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30% 의무화

### 국토부, 내년 18% 등 2022년까지 매년 3%씩 늘리기로

### 채용의무 비율 없어 들쭉날쭉...한전 지난해 8.8% 그쳐

나주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을 선발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한국전력을 비롯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지역학교 출신이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13.3%인 이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있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작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도시별로 보면 가장 높은 부산혁신도시는 27.0%를 기록한 반면 최하위인 울산은 7.3%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블라인드 테

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예정 선발 인원보다 많은 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음 해 채용 규모를 조절하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 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단,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선발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도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매우 적은 경우 등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 소

재 학교 출신이지만 인접한 시·도간 협의가 이뤄지면 학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지방 고교 출신이지만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에 있는 만큼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교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전남 나주시는 영산강 고대 문화권 인골복원의 첫 사례인 ‘마한의 귀족 여인’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9일 전했다. 사진은 출토된 마한 유골. <연합뉴스>

## ‘마한의 귀족 여인’ 최초 공개

### 22일 마한축제서...영산강 고대 문화권 인골 복원 첫 사례

나주시는 영산강 고대 문화권 인골 복원의 첫 사례인 ‘마한의 귀족 여인’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나주시와 북암리고분전시관은 22일 마한축제를 맞아 영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 중 남녀와 아이 등 가족 구성원 3명에 대한 얼굴을 복원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한인의 가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古)인골의 안면 골격부터 피부, 고대 의상에 이르기까지 영산강 유역 마한 후예의 모습을 역추적해 고스란히 복원한다.

프로젝트에는 고고학, 법의학, 해부학, 디지털 그래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그래픽(3D) 영상을 완성한 뒤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응용해 고대문화와 미래 4차산업 간의 징검다리 역할도 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골의 복원과정을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공개한다. 인골 전시와 함께 ‘마한(馬韓)의 얼굴,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동아대 김재현 교수를 비롯해 후나하시 료오코(일본 규슈대), 마자디 홀로스(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칭위 제시가 류(영국 리버풀 존머어스 대학) 등 국내외 저명한 인골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골 복원은 현대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고고학의 접목으로 마한의 실제 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례다”고 말했다.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 반남면 일대는 고대 마한이 세력을 떨쳤던 곳으로 금동신발 등 유물과 옹관묘 등 다양한 묘제가 발견되는 등 영산강 고대 문화 유적의 산실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

##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 도, 집중 지원방식으로 변경

전남도는 내년부터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과 액수를 조정해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학교별 지원예산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상 학교 선정 주체는 시·군에서 도로 변경하고, 지원 학교는 15개에서 5개로 줄이기로 했다.

계획 평가와 서면 평가에 현장평가를 추가해 대상을 엄선한다.

단기·소규모 지원 방식으로는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작은 학교 관계자는 “학교장 임기 3년에 맞춰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학교 살리기 계획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어 몇 년 후면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전교생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2013~2014년 342곳, 2015년 359곳, 지난해 363곳, 올해 368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전체 학교(894개) 수 대비 41.2%나 된다.

하지만 농어촌 작은학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서 제외된 도다른 작은 학교의 소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우려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시작, 올해까지 20개교에 3억원을 지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사무국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한·미 입장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

### “주한미군 등 입장차 자연스러운 것”...유엔 사무총장 만나 한반도 위기 해결 중재 요청도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간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과 관련해 “한·미 입장이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뉴욕 지역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기지의 경우 한·미에 공동의 이익이 있지만, 방위비를 더 분담

해라, 충분하다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놓고도 서로 유리하게 하겠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정도의 입장 차이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현안을 놓고 ‘엇박자’

가 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 중 수용할 만한 부분은 받아들여면서도 대화로 얼마든지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엔 사무국을 방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광주시·전남도 제2남도학숙 명칭 공모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에 유학중인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유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604명 규모로 건립중인 제2남도학숙의 명칭을 공모한다.

건립 취지와 지역 특징, 지역 정서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면서, 지역민들이 연상하기 쉽고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20일 10월 19일까지 이메일(jug33@korea.kr) 또는 팩스(062-613-2719)로 접수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당선작은 10월 말 발표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작 2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각 3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씩이 주

어진다. 제출서식 등은 광주시와 전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남도학숙은 1994년 개원 이후 1만 1000명의 지역 출신 청년들을 배출했다. 매년 입사 경쟁률이 2.5대 1을 넘어 설 만큼 선호도가 높아 입사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영, 시·도는 제2남도학숙 건립사업을 민선 6기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총 사업비는 498억원으로, 시와 도가 각각 50%씩 부담했다. 대지 5960㎡, 건축 연면적 1만3717㎡,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올해 11월 준공된 뒤 내년 2월 개관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한마음 공인중개사

- ▶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전, 삼거리 코너(뒷집 직입증), 매매 4억3천만원
- ▶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 ▶ 무등산 총장사 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액 정원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액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정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 ▶ 화순 도곡은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 ▶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계림오거리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010-5236-7458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